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한 것.

2026대입부터 의무반영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2024학년부터, 인적·학적 사항,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누어 기록하던 학폭 징계 조치를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학폭 조치)’에 모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9호로 구분됩니다. 9호에 가까울수록 징계 수위가 높고,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집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는 기간 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기록을 유보합니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을 보존합니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전학)는 예외 없이 4년 동안 보존하고,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학폭 조치는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학년 대입부터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정성 평가, 정량적인 감점, 지원 자격 제한 등으로 대학마다 다릅니다. 2026학년 수시에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 서류 평가에 학폭 관련 기록을 반영했습니다. 건국대는 모든 전형에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1호는 감점이 없지만 6~9호는 총점 1천 점 중 500점을 감점해 불이익이 컸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폭 조치를 받은 자는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대나 의대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학폭 이력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지원자 중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수험생의 75%는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에서는 학폭 이력을 가진 학생 전원이 감점을 받고 탈락했습니다. 학폭 기록이 실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학교 학폭 이력도
대입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본지 1201호
‘READER’S Q&A’를
참고하세요.

